

성 김대건안드레아와 성 정하상바오
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

제1독서 : 지혜 3, 1-9
제2독서 : 로마 8, 31-39
복 음 : 루가 9, 23-26

숲 정 이

“사람이 온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루가 9, 25)

강론

죽음의 가치

김원중 신부/사목국 부국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목숨이다. 재물보다도 명예나 권세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 중에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목숨이건만 특하면 ‘죽겠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등등 너무도 쉽게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죽겠다’는 말 중에 신앙과 연결 지어 죽겠다는 말은 왜 없을까요? 주일미사 가고 싶어서 죽겠다, 강론 말씀 듣고 싶어서 죽겠다, 고백 성사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뿐이 아닌 실제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순교자들은 망나니의 칼 아래 목숨을 맡기고, 하느님께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을 지닌 채 순교하십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 삶의 가치가 진정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말라비틀어진 고사목이 아닌, 한 알의 씨앗처럼 이 땅에 뿌려져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평생을 고결한 성품으로 제자를 가르친 어느 스승이 막 숨을 거두려 하자 그 제자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더 오래 저희 곁에 살아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은 죽는 법이 없다.’

소리

함께 움직이는 세상

성서교실 개강 전날 봉사자 두 명과 함께 교실 청소를 했다. 방학 동안 쌓인 먼지가 대단했다. 바닥과 책상을 몇 번씩 닦고 아래층 탁자를 위층으로 올리고 강당 바닥을 닦은 다음, 마지막으로 강당에 있는 신발장을 닦았다. 신발장에는 심란할 정도로 먼지가 수북했고 거미줄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닦을 때마다 숨을 들이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일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 중에 풀썩이는 먼지를 마시며 이 신발장을 닦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보니 작년에 내가 깨끗한 교실에서 편하게 성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봉사자들 덕분이었구나 싶었다.

그때, 내가 이 물건을 쓰고 있는 것도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땀 흘린 노동자들 덕분이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세끼 식사도 농민들 없이는 안되는 일이지. 정말 모두가 함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혼자서 진리를 발견해낸 것처럼 가슴이 뛰면서, 그 동안 무시코 지나쳐버린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쩡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우 상쾌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 몸을 죽음 속으로 던지신 주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큰 희생을 묵상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힘이라도 이웃을 위해 나눌 줄 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소서!
(덕)

숲정이 산책





1998년 성령의 해

“좋은 이웃 되어주기-용서 청하고 용서하기”

그녀는 고작 열 아홉 살이었다. 그녀라고 대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딸이었었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이었다. 집안 물건까지 내다 팔아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을 때리곤 했다. 그녀는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상경하여 모 제약회사에 취직했다. 친구들은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갔다. 부러웠지만 할 수가 없었다. 생활비, 동생들 학비, 아버지 약값……. 월급은 늘 모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 자취방에 돌아와 누운 후에도 그 말씀은 계속 메아리쳤다. 원수, 원수, 원수……. 그 원수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이 아파 온 밤 내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용서해 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며칠 후 그녀는 월급을 타 집에 가게 되었다. 마음에는 오직 하나 “단 한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뿐.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 여전히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또다시 미움이 솟구쳤지만 “주님, 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외치며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처음 듣는 인사였기에. 그녀는 그 밤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도우심을 청한 후, 그 동안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청했다. 그들은 함께 얼싸안고 울었다. 아빠가 말 씀하셨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나도 새로 살아보겠다.” 그 후 그녀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회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회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제삼천년기 32). “교회는 자기 자녀들이 참회를 통하여 과거의 과오와 불충한 사례들, 항구치 못한 자세와 구태의연한 행동에서부터 자신을 정화하도록 격려하지 않고는 새로운 천년기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제삼천년기 33).

나 자신과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이 화해의 물결은 담장을 넘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사상의 차이를 넘어, 시간의 구분을 넘어서까지 흘러 넘쳐야 한다. 용서 청하고 용서하겠다는 나 하나의 용기가 막혔던 물고를 트고 신명나게 흘러 온 누리에까지 번져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대희년 주교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대 사회적 차원에서 서로 용서 청하고 용서하는 화해의 분위기를 이루도록 권유하고 있고, 화해주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용서 청하고 용서하기 위해 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웃 안에서,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종교 안에서, 더 나아가 역사 안에서 나와 나의 세대, 내가 속한 단체가 용서를 청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화해를 이루시는 성령님, 화해를 향한 저희의 발걸음에 용기를 실어주소서. 아멘.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 2000년 대희년(가장) 1년 3개월 10일 남았습니다.

“순교자 현양”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공연

일 시 : 9월 26일(토). 오후 7시 30분
장 소 : 치명자산 성당
주 최 :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후 원 :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도·농 일치와 나눔을 위한
추석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햅쌀, 소고기, 돼지고기, 각종과일, 잡곡,
참기름 등

일시 : 10월 2일~4일 장소 : 중앙성당
주최 : 전주교구 농민회

명성제과제빵 기술학원
 학력시대는 가고 전문기술자, 자격증시대
 속성반, 고등반, 주부취미반
 군산, 장항, 서천 차량운행
 ☎ (0654) 451-6550
 최 경 수(스테파노)
 군산의료보협조합입구-경포초등학교앞편

토탈 패션
I M A⁺
 영개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테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기장, 신고, 양도, 중여, 상숙,
 부가, 이익신청
 -교우 개업시 세무신고 세무 무료상담-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세무사 이 환 영(아오스딩)
 사무장 이 종 명(시 문)
 ☎ (0652) 254-3346
 253-3346~8

침대 공 전시장
 (이 레 가 구)
 • 싱글 : 95,000원
 • 더블 : 130,000원 부터
 • 쿼 : 220,000원
 전주점 (0652) 211-8716~7
 익산점 (0653) 843-2676
 군산점 (0654) 465-2841
 대표/김미숙(안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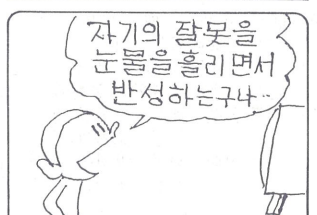
☞ **궁금해요** ++++++

저는 기도를 바칠 때면 언제나 분심이 생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느님만을 생각하며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요?

여섯 살 먹은 아이가 무엇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7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심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신부님이 말 타고 공소를 돌아다니던 시절, 신부님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부인 자신도 기도할 때 가끔 분심이 든다는 말씀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신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신부님도 기도 중에 분심이 드십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자 그 신부님은 '분심없이 주의기도를 한번 다 바치면 내가 타고 온 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자는 너무나 좋아하면서 주의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하다가 갑자기 신부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말 안장도 끼워주시는 거죠?'

분심을 일으키지 않고 기도를 바치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기도 중에 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심이 들었다고 해서 기도를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심까지도 기도라는 생각으로 다시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기도를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심이 (1311) 김병오



화산동 성당 신축공사비 마련 바자회
선녀머의 열린 한마당 잔치
전교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회, 공연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 9. 10. 15(목)~10. 18(일)
장소 : 화산동 성당
☎ 221-9842~3

교구·제 단체 소식 ++++++

1. 전주, 군산 사회교정사목 후원회원 성지순례 : 9월 21일(월) 오전 10시, 시청민원실앞 출발, 참가비 3,000원(점심제공)
2. 구역반장교육(2차) 군산지역 : 9월 21일(월), 오전 10시, 오룡동 성당
3. 군인신학생 피정 : 9월 21일(월)~26일(토), 한마음 수련장
4. 가르멜 재속회 : 9월 21일(월), 오전 11시, 윤희관, 연락처 (0652) 282-0700
5. 사제평의회 :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교구청
6. 새사제연수 : 9월 24일(목), 교구청
7. 레지오 영성피정 : 9월 25일(금), 치명자산
8. 은혜의 밤 철야기도 : 9월 25일(금), 오후 11시, 전동성당
9. 선택월모임 : 9월 26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10. 혼인강좌 : 9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센터
11. 봉동성당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 : (0652) 262-4171

봉동성당 봉헌식

봉동성당(주임 이완재 신부)은 9월 15일(화) 오전 10시에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로 신축성전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상삼례성당에서 분리되어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된 봉동성당은 1300평의 대지에 192평의 건물로 이루어진 아담한 성전으로 봉동지역 신자들의 신앙생활 중심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1998년 9월 27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주가톨릭센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의전화 : (02) 3673-2525
대상 : 외방선교를 지망하는 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남녀)

알뜰가구 할인매장

전자제품, 가구, 침대, 쇼파 생활용품 일체
중고에서 → 신품까지
할 일 수(프란치스코)
김영선(글라리아)
익산 쌍방울 사거리에서→삼례가는 길
☎ (0653) 832-8245

행복 웨딩 스튜디오

웨딩앨범 제작, 아기·가족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정진우(아모스)
정성미(레아)
☎ (0652) 471-5557, 465-4996
:교우분들께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 점인아트 맞은편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점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경환(파비아노)
약사 범순복(안나)
익산시 영등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852-4666
약국 (0653) 841-7217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9월 27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 본원
문의 : (0527) 52-4241
*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써 더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103위 한국 성인 성녀들이여 도와주소서!

1. 모임: ① 울프레야, 홍보부-20일(주일) 교중미사 후
② 성심부녀회-23일(수) 전 10시
③ 전례부, 테니스회, 청년회-27일(주일)
2. 성전기금 마련현금: 오늘 2차현금 있음.
3. 사랑의 헌금주일: 사랑의 다리, 성소순회회비 납부의 날임
4. 사회복지분과위원 모임: 교중미사 후
5. 본당 여성 제단체 피정: 22일(화) 전 9시, 천호 피정의 집
6. 사목방문: 24일(목) 전 10시, 주교님께서 본당에 방문하시
이날은 전 9시 미사도 봉헌함
7. 병자 방문: 25일(금) 후 2시, 진달래 마을 미사-후 4시
8. 회합실 사용: 각자 회합실은 책임지고 깨끗이 사용 요망함.
9. 예비신자 교리: 매주 수요일, 목요일, 주일에 있음.
10. 성서와 교리교실: 매주 수요일 8시에 신자 재교육 있음.
11. 가정과 본당의 성화: 선조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읍시다.
12. 감사: 각종 교회헌금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13. 금주 전례: 해설-이점열, 독서-김성수(안드레아) 부부
봉헌-조기완(가브리엘) 가정
14. 차주 전례: 해설-박영춘, 독서-한종일(가시미로) 부부
봉헌-최재준(요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833,550원 □ 교무금: 1,307,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무실 2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274-9260 수녀원 2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심을 본받아 제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됩시다!

- ◎ 오늘: 애령회 2차현금, 교무금 납부일
1. 금주 모임: 꾸리아-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교육관
 2. 주간 모임: ① 임시사목회-23일(수) 후 7시, 4회의실
② 동산회-26일(토) 후 2시 성당에서 출발
 3. 차주 모임: 애령회, 방주회, 청년공동체
 4. 유아 세례: 24일(목) 후 7시 30분 * 2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5. 환자 봉성체: 25일(금) 후 1시~ , 수녀님
 6. 본당 설립 10주년 및 검진식: 10월 11일(일) 전 10시, 해성학교
① 견진교리-27일(주일)~10월 2일(금) 후 7시 30분~10시
* 칠팔날-27일(차주) 저녁미사 후(후 8시 20분)
② 견진 대상자-영세받은 중학생 이상 신자
③ 신청서 접수-22일(화)까지 구역반장 또는 사무실
 7. 추석 합동 위령미사: 미사에몰을 사무실에 접수 바람
 8. 99년도 월력광고 내실 분 접수바랍니다.
 9. 부지헌금 2차 신림 감사! : 김정혜 20만, 누계 734만원
 10. 독서: 금주(새벽)-오광희, 황순자, 차주-김종완, 여성순
(공식)-정형철, 나유숙, 차주-박수복, 정금순
 11. 미사 안내: 금주-가난한이의 모후Pr., 차주-새벽의 모후Pr.
12. 주차 안내: 금주-바다의 별Pr., 차주-화해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915,610원 □ 교무금: 1,660,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무실 287-0441 주임신부 박기준
수녀원 281-0441 사목회장 최공엽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선교하는 공동체
1. 금주 모임: 전례단-22일(화) 미사 후
 2. 차주 모임: 요셉회, 사라회, 꾸리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예비신자 교리: 매주 화, 목 저녁미사 후
화-신부님, 목-수녀님
 4. 성서 공부: 매주(금) 후 2시
 5. 성지순례: 10월 11일(일), 장소-연풍성지, 신청마감-9월 말까지
참가비-만원
 6. 신축헌금 재 신림: 우지환 300만, 이은경 100만 총계-400만원
*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7. 축 훈배: 오늘 12시 30분,
신랑-황석관(사도요한), 신부-주미숙(안젤라)
 8. 전입가정 방문: 매주 목요일
 9. 성가대원 모집: 누구나 환영
연습시간-매주 금요일 후 8시
 10.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율: 미리미리 접수하세요.
 11. 차주 전례: 해설-이규세, 독서-오현주, 이형수
 12. 청소봉사: 3, 4구역

□ 지난주 봉헌금: 1,299,050원 □ 교무금: 1,256,000원

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서석구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강호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영근

- ◎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누계-884,410단
◎ 축! 영명: 김에메리마 수녀님 *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림
◎ 축! 영명: 강호(가브리엘)신부님 * 축하식-차주 공식미사 후

1. 금주 모임: 승리의 여왕Cu.-전 9시
2. 예비신자 교리: 수요일 후 8시, 목요일 후 8시-신부님
화요일 전 10시, 목요일 전 10시-수녀님
3. 추석 합동미사: 먼저 가신 선영을 위하여 미사에몰을 정성껏 봉헌합
시다. * 미사시간-전 6시, 10시 30분
4. 열차판매: 7,000원, 12,000원, 13,000원, 23,000원
5.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2,430,000원(5세대)
7. 축! 혼인성사:
오늘 12시 30분, 본당, 신랑-남상용, 최윤희의 장남 희석
신부-인홍태, 차영자의 장녀 경운
27일(일) 12시 30분, 본당, 신랑-홍경만, 김정자의 장남 명현,
신부-강진삼, 정병순의 장녀 수영
8. 차주: 요셉회
9. 금주 전례: 해설-여태구, 독서-김영길, 오순자
봉헌-김규완, 황경례 부부
10. 차주 전례: 해설-박해숙, 독서-여태구, 정현주
봉헌-유영균, 강선화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328,240원 □ 교무금: 1,795,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성전신축헌금 신림금을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① 제대회, 상지원 봉사-낮미사 후
② 전례자 회의-저녁미사 후
2. 예비신자 교리: 성탄반-23일(수), 24일(목) 후 8시
3. 성가연습: 25일(금) 후 8시
4. 차주 모임: 구역(반)장회, 성모회-낮미사 후
5. 구역 미사: 25일(금)-우성근영
6. 청소년 봉사: 26일(토)-로사리오의 모후Pr.
7. 폐품 정리: 26일(토)-은총의 중개자Pr.
8. 화단정리: 10월 3일(토)-성소들의 모후Pr.
9. 금주 전례: 새벽-유희정, 낮-최경순, 저녁-정인자
10. 차주 전례: 새벽-곽순옥, 낮-김영중, 저녁-이영숙

□ 지난주 봉헌금: 997,810원 □ 교무금: 1,124,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2,440,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수녀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해근

◎ 올해는 본당의 정한 「선교 실천의 해」입니다.

쉬는 교우 회두 권면, 예비신자 인도, 이웃사랑 실천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합시다.

1. 금주 모임: ① 울프레야-20일(일) 후 8시, ② 꼬미시움-26일(토)
후 3시 2. 차주 모임: ① 전례해설단회의-27일(일) 10시 미사 후
② 꾸리아-30일(수) 전 10시, ③ 사목회-10월 2일(금) 후 8시
④ 성모기사회-10월 3일(토) 전 10시
3. 성령쇄신목상회: 21일(월)~26일(토) 후 7시 30분~10시
참가비-5천원, 사무실에 접수바람.
4. 성지순례: 10월 18일(일), 연풍성지, 참가비: 일반-만원, 학생-오
천원, 참가신청-각구역장 또는 사무실 5. 성서 교리교실 개강:
29일(화) 매주(화) 전 11시, 후 8시 6. 레지오 전단원 교육: 30일
(수) 후 7시~10시, 강사-광주 세나투스 단장, 주제-선교교육
7. M.E 모임 예정: 27일 * M.E 주말을 경험하신 분들은
호지동 M.E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람.
8. 축! 혼인: 20일(오늘) 후 1시 30분
유복만(안드레아), 최미자(젬마)의 3남 유경열(시몬)
이금주 여사의 1녀 황보경 9. 유아 세례: 26일(토) 후 3시
10. 이웃사랑 기금: 1일~13일까지 850,000원 * 감사드립니다.
11.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차)봉사: 쌍용1A 구역
12. 본당의 모든 기물을 아껴쓰고 주변을 깨끗이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1,215,110원 □ 교무금: 904,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니다!”